

라운아띠 12기 동티모르 딜리팀

9월 보고서

딜리에서 보내는
뜨거운 편지



뜨.친.소

뜨거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Carlos ; 안정진



- 딜리 바보
- 테라산타 일진
- 파인애플 머리(cf.징기스칸 머리)
- 티모르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함
(신기한건 대화가 된다는 것)
- 나카를로스: Nakar(망나니)+Carlos

Mingas ; 남유림



- 두목, 아이무틴 깡패, 꼴티모르 사장, 남엄마 (깡패성향 다분함)
- 인격부자 (조울, 다중이 성향등등 팀원이 여러명인 착각일으킴)
- 성대모사 달인, 요리왕, 빨래왕, 전화왕
- 수업은 필요없다. 독학으로, 세탁은 까먹고 두 번 돌리는 맛이지 수업시간에는 자는 맛이지.
- 모든 거래는 버거킹으로 (신문지로 만든 지갑등을 버거킹과 강제교환)

Francisco ; 송성한

- 음악이 안나오는 이어폰을 사용. (팀원이 말걸면 노래 듣느라 못 들은척함)
 - 하루에 1년씩 늙음, 여수에 있을 때부터 국정원
 - 1일1맥주 시연중, 테라산타 연예인
 -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남
 - 설거지 담당
 - 라벨레 꼬알리아(말할줄 모름이라는 떠뚝, 말이 없음)
- PS 이걸 진짜로 썼다고 화냈음



Berta ; 구슬이

deit berta mesak la haris, sempre haan

(Only berta alone does't wash, always eat)

- 돈만쓰면 돈이 비는 구멍난 회계(9월 회계 담당)
- 아기들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음(도망으로 추정)
- 영유아바라기
- 아토피와 충치로 투병중 (잘 씻지 않으므로)



Manas Kolega



9월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출국	5 덜리 도착	6	7
INTERNATIONAL YOUTH CAMP						
15	떼뚱어 수업				20	21
END POVERTY 청년과의 만남			END POVERTY 여성청년과의 만남		27	28

A group of four young people, two men and two women, are standing in an airport terminal. They are all smiling and making peace signs with their hands. The man on the far left is wearing a blue jacket and holding a green passport. The woman next to him is also wearing a blue jacket and making a peace sign. The woman next to her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a blue jacket, also making a peace sign. The man on the far right is wearing a white t-shirt, a black cap, and a backpack, also making a peace sign. The background shows the airport terminal with other people and signs.

For Dili

인천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발리 경유, 9시간 비행 끝에 닿을 수 있는 곳.
발리 경유 비행기편이 취소되어 티켓을 재발급 받는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무사히 힘겹게 도착한 딜리.
그러나 한국과 시간은 같은, 멀지만 가까운 곳.
그 곳, 딜리로 간다.

For Dili

09/05

우리들의 설레는 시작에 대한 생각들

정진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가기 전부터 했는데 부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향이 오더라도 넷이서 함께 이겨내리라 믿는다.

슬이

동티모르는 어떤 곳일까. 우리 팀은, 나는 어떤 5개월을 보내게 될까. 내 인생에서 티모르의 뜨거운 겨울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그 어떤 것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 처음 여수Y에 갔을 때 팀원들과 함께 읽어보았던 지란지교가 떠오른다. 즐거우면서도 치열한, 치열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 되길. 항상 고민하며,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

티모르에 가는구나. 그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올 수 있을는지. 그럼에도 팀원들과 떠나는 이 길은 그저 즐겁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성한

유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뭐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다.
겸손하고 감사하게 이 모든 일상을 받아들이자.



YOUTH CAMP

티모르, 일본 그리고 한국청년이 만났다.
언어가 달라도 서로 교감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나날들.
달빛아래 춤추고 노래하던 그 때,
어쩌면 내 청춘의 가장 뜨거운 나날들이 아니었을까.

Youth Camp

09/08 ~ 09/14

일정표

9/8	9/9	9/10	9/11	9/12	9/13	9/14
Youth Camp 시작	티모르의 환경문제 & 쓰레기봉투 나눠주기	한국과 일본의 환경문제 & 덤프사이트 방문	티모르 정부인사 초청 강연 (환경, 개발) & 지역 NGO 방문	산타크루즈 국립박물관 피스커피 방문 & 에코백 디자인	크리스토레이 & YMCA 축구관람 & Culture Night	최종평가 & 캠프마무리

Youth Camp

09/08 ~ 09/14

주제토론 <개발과 환경>



개발과 환경을 주제로 각 나라별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동티모르는 나무를 베어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와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개발, 일본은 재활용, 한국은 제주해군기지와 평창올림픽 유치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다뤘다.

Carlos

정진

누구나가 다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걱정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점점 더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우리 모두가 때묻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나 싶기도 하다.

개발과 환경에 대한 티모르 청년들의 열기는 무척 뜨거웠다. 포르투갈어 사용공동체 회의인 CPLP를 동티모르에서 주관하며, 도시 개발에 따른 철거민이 발생한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던 것 같다. 소위 개발된 국가에서 겪는 환경 파괴 혹은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Berta 스티미

Francisco 성한

티모르, 일본, 한국이 다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제로 개발과 환경을 잡았는데, 다들 열띠게 토론에 참여해주고, 의견을 공유해주어서 재밌었다.

또 티모르 친구들의 토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들이 개발과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내심 놀랐다. 내심 놀랐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적었다는 의미이겠지.

이번 기회에 청년들과의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들에 대한 나의 편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Youth Camp

09/08 ~ 09/14

주제토론 <쓰레기장 티바>



강원도 크기의 작은 나라 동티모르.
이 곳의 수도 딜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 티바.
이곳엔 재활용이란 개념도 없고, 모든 쓰레기를 태워버린다.
티바를 다녀온 후 유스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딜리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Carlos 정진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딜리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장을 보고 마치 재앙과 같은 광경이어서 놀라기도 했고 모든 나라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

Mingas 유림

살면서 쓰레기장을 직접 볼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소, 돼지, 사람들이 함께 엄청난 쓰레기들을 뒤지는 모습은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지만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쓰레기장보다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더 먼저 눈에 아른거렸다. 딜리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딜리, 동티모르를 넘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Berta 슝이

티바에 들어가는 길목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지만 멀리서 오는 매캐한 연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냄새가 나고, 눈이 아픈데 그곳 주변에 마을이 많았다. 이런 곳에 살면 분명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딜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아, 서울은 어떠하며, 세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Francisco 성한

입과 코를 가리려 썼던 손수건이 검게 변했다. 종이와 플라스틱은 물론이요. 가스통도 한꺼번에 불에 탄다. 검은 유독가스가 피어 오르는 곳에 쓰레기를 뒤지는 아낙네와 아이들 그 속에 소와 돼지도 있다. 수도의 외곽, 푸르른 바다를 지나 어느 마을 안쪽의 쓰레기 더미들. 멍하니 검은 연기만 바라봤다.

Youth Camp

09/08 ~ 09/14

산타크루즈,
드리박을관 탐방
구서구

동티모르, 티모르레스떼의 독립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의 조그마한 나라,
기나긴 식민사 속에서도 독립의 염원을 잊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의 설움과 희생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첫 신생국.
동티모르, 티모르레스떼가 걸어온 역사 속으로 걸어가본다.

동티모르는 작지만 깊은 나라다. 사람들의 눈도 깊고, 커피향도 깊다. 무엇보다 지리한 식민사 속에서 독립을 일구어낸 그들에게 이 나라는 누구보다도 깊은 의미이리라. 떼뚱어가 서툰 내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역사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청년들, 산타크루즈 대학살의 첫 희생자를 기리며 고개 숙이는 이들. 국가라는 경계를 떠나 희생자에게는 숭고한 존경심을 그리고 독립을 지켜보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을 보내고 싶다.

Francisco정환

Mingas유림

한국에서 찾아본 동티모르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 자체가 거의 식민지사였다. 독립된 국가로 탄생된 지 불과 12년째인 이 나라에, 이런 역사적인 시대에 내가 들어와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일이다. 청년들과 함께 직접 독립사를 들어보고 그 발자취를 만날 수 있었던 무척 뜻 깊은 기회였다.

Carlos정진

말로만 듣던 티모르 독립과정과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직접 영상자료와 각종 사료로 접하니 사뭇 한국의 역사와 동질감을 느꼈다. 더 함께하고 싶고 비슷한 아픔이라는 것에 정이 자꾸만 간다.



Youth Camp

09/08 ~ 09/14

청년들과 함께하는 밤



Youth Camp

09/08 ~ 09/14

Berta (슬이)

티모르에 올 때만 해도 '이곳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말도 안 통하고 생긴 것도 다른데, 그게 가능할까...?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게임을 하면서, 청년들과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처음에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나 개성이 강하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나라던 노는 건 다 비슷하구나. 청년들과 놀면서 가짜 웃음이 아닌 진심으로 웃기고, 진짜 재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신기하고 초장부터 청년들과 이렇게나 친해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Francisco 성한

지칠 줄 모르던 세븐업과 바니바니의 열기,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던 밤. 굳이 많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서로 즐겁고, 웃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아른거린다. 이토록 많이 웃었던 적이 또 있었을까.

Youth Camp

09/08 ~ 09/14

Carlos (정진)

매일밤이 즐거웠다. 지금 아이무틴에서 지내는 밤들이 너무 허전하고 센터로 매일 가고 싶을 정도로 청년 친구들이 좋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처음 이 마음이 식진 않을까 할 정도로 초반에 불타오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렴 시작이 좋다. 사람 사는것 역시 다 비슷했다. 친구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사람 사귀는 시작이 아닌가.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랬듯 티모르의 날씨 음식 등등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Mingas (유림)

밤 10시는 세븐업타임! 테라산타 마을의 밤을 장악한 우리!!! 노래하고 춤추고 박장대소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이 친구들과 친해져야해, 친구가 되고싶어 어떻게 하지? 따위의 고민을 할 찰나도 없이 하룻밤에 베프가 못해도 10명은 생겼나?! 정말 친구가 된다는 것은 미션도 공부도 아니다. 그냥 놀면 되는거다!

Date: 17-09-2014
Date: Loron - Fulan - tinan

fate, many = Leave

ate orsida / loqu = see you later

ate aban / amantya = see you tomorrow

ate bainrua = see you day after tomorrow

떼뚬어 수업

내 생애 떼뚬어를 익혀야 할 일이 또 있을까?
아니, 세상에 '떼뚬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의 교감만큼
언어에 담긴 그들의 삶을 느끼고 싶다.

떼뚝어 수업

09/08 ~ 09/14

Francisco (성경산)

언어는 또 다 두려움이다. 어찌면 합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건 아닐는지 걱정스럽다. 한 때는 틀릴까봐 겁이 나서 배우고도 써먹지 못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 되었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바디랭귀지를 하던 하물며 한국어라도 써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하면 부끄러워말고 물어야하는 것이고. 별별 걱정 탓에 떼뚝어 수업 초반에는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려 수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따금씩 10분의 쉬는 시간에 30분을 동네에서 놀다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교실에 놀러오는 꼬마들과 짠짓거리 하는 경우도 많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배운 것은 실습을 해야 기억에 오래 남지 않으리라는 것. 덕분에 학습 의욕이 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참 설레는 일이다.

피부도, 문화도, 언어도 다르다.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많은 우리.

하지만 아시아인 혹은 지구시민으로서 갖는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았다.

티모르, 한국청년들이 함께하는 End Poverty.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캠페인을 그려나갈까.

End Poverty

2014년 09월

리얼 1차 모임

Mingas (유림)

티모르로 오기 전 티모르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단 이야기를 들었지만 회의를 거친 결과 일자리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자 캠페인으로서는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아 브리핑에서 제외시킨 주제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 문제였고 놀랍게도 청년들이 그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와서 흥분된 만남이었다.

Berta (슬이)

라운아띠끼리 논의한 주제에 티모르 청년들의 유흥거리 부족이라는 주제가 있었다. 학교가 끝날 때 썸이면 놀 장소가 없어서 나무 그늘에 무리 지어 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청년들과의 회의 도중에 옆에 있던 친구에게 나는 테라산타의 문제에 '유흥거리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 놀 곳 되게 많아! 학교, 바다, 운동장, 센터에서 놀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니 '아, 우리가 우리들의 잣대로 그들의 고민을 판단하려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 중심으로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해보기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End Poverty

2014년 09월

22일 2차 모임

Berta (슬이)

2차 미팅을 통해 여성청년들과 함께 캠페인을 했다. 유스캠프때 남자애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며 춤을 안 추고, 여자들 숙소에서 멀리서 들리는 음악소리에 진짜 멋지게 춤을 추던 여자친구들이 생각난다. 팀원 내에서도 '여기 문화가 원래 이런 거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무렴, 부딪혀보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판단하긴 이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End Poverty

2014년 09월

26일 3차 모임

With

(여성참가자들)

Mingas (유림)

캠페인 기획 전엔 여성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고민하고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껏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미팅 후 가부장적인 티모르의 문화 관습과 수동적인 티모르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를 고려했을 때 여성참가자들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들이 직접 센터로 나와 함께 무언가를 조직해보는 일이 익숙치가 않은 것 같다. 여성들의 빈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고 떼뚱어가 늘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직접 여성들을 만나러 마을로 찾아가야겠단 생각을 했다.

Francisco (성한)

우리가 준비해서 '짜잔' 하고 내보이는 캠페인이 아니어서 더욱 기대된다. 청년들과의 첫 만남을 준비할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외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캠페인을 만들 수 있을거란 기대가 커졌다. 첫 만남에는 한 분의 여성 간사님과 두 명의 아띠를 제외하면 모두 남자였는데, 이제는 여성 청년들(대체로 남자 청년들보다 어리지만)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티모르 청년이 리더인데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꽤나 재미있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도 더 즐겁고. 10월, 본격적인 캠페인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



딜리에 사는 네 청년



딜리에 닿았다. 동티모르 딜리.
멀게만 느껴졌던 그 곳, 어느덧 우리가 그 곳에 서 있다.
우리는 딜리에서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 '너'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딜리팀의 일과

미끄롤렛.

우리의 주된 교통수단. 딜리팀은 하루에 4번 미끄롤렛을 이용한다.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고, 앞사람의 무릎이 닿을 만큼 좁고, 더운 미끄롤렛. 미끄롤렛을 타고 집에 오면서 그날 배운 떼뚱어로 우리끼리 뭇 봐, 웃지마, 너 얼굴 아프니? 라는 말을 하면 옆에 있는 티모르 사람들이 킁킁 웃는다. 저번에 Sandra라는 예쁜 여학생이 미끄롤렛에 탔을 때, Carlos(정진)가 번호를 땀었는데, 진짜 웃겼다. 보편적 일과가 너무 익숙해져 지루함이 되지 않게 살아가자.

장보기

딜리팀은 한국 간사님 세분과 함께 지내는데 식사를 다같이 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아띠 단원인 우리가 장을 보는 일이 많다. 가끔 야채를 살 때면 메르카두(로컬마켓)에 간다. 절대 깎아주지 않는 단호한 상인들. 그치만 티모르 사람들이 직접 기르고 파는 야채를 사는 그 과정이 즐겁다.

주된 장보기는 티모르의 자랑인 티모르 플라자에서 대략 3일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걷기엔 좀 멀고, 미끄롤렛을 타기엔 가까운 거리라 매일 그곳에 갈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간사님 생일 (9/14)

유스캠프가 끝난 직후 한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신 기연 간사님의
29번째 생일을 함께 한 딜리팀.
우리야 말로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닐까.

작가님 전시회 (9/19)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시는 임의진
작가님의 동티모르 방문과 전시회로 뜻깊은
감명을 받은 딜리팀.



Carlos의 이발은 누가?

살롱에 가도 되지만 굳이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청년 친구들에게
직접 머리를 자른 Carlos.
귀찮을 법도 하지만 부탁을
몇일 후에 들어줘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던
우리의 친구 Octo.
고맙기도 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게
이런것 인가 싶다.



딜리팀의 요리왕은 누구?



간사님들과 함께 총 7명이 생활하는 딜리팀의 식단을 전적으로 담당해주는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요리의 마술사 Mingas. 그녀의 요리솜씨는 가히 가공할 만한 맛과 다양함을 지니고 있다. 약 한달정도를 매일 다른 식단으로 그것도 맛나게 짤 수 있는 사람이 그녀 말고 또 있을까 고맙다 밍가스.



팀 리더

9월의 리더는

Carlos

‘리더 쉽지않네’



총무

인간 계산기 일명 전자두뇌

Berta



‘돈만 쓰면 빵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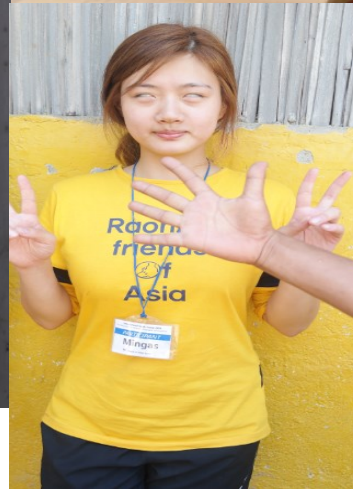


서기

기록은 나의 생명

Francisco

‘하나도 놓치지않고 적는다’



카레라

리
스

사진관리

사진은 작가처럼 Mingas

‘내가 제일 이쁘죠?’

9월의 기억

Carlos 정진 ;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7일간의 합숙인 유스캠프. 말도 안배운 상태에서 시작한 캠프지만 덕분에 억지로 억지로 생존본능의 자극일까 단기간에 떼뚱어도 많이 늘고 청년들과도 가까워진 것 같다. 역시나 몸이 부대끼는게 친해지는데는 최고인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딜리팀 안에서도 밖에서도 몸을 부대끼는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Berta 슌미 ;

나도 유스캠프. 처음에 센터에 갔을 때, 양아치 같고 무섭게 보였던 청년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유스캠프 동안의 열악했던 환경이 참 기억에 남는다. 밤마다 몸에 개미가 기어 다니는 것만 같아서 간지러웠던 것, 아침마다 추위에 떨면서 일어났던 것, 뭔가 꺼름칙한 물로 했던 샤워.(하지만 내 인생 최고로 상쾌했던 샤워.) 힘들긴 했지만, 매우 즐거웠고, 다 너무 소중한 기억이다. 또 지금 숙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지, 초장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9월의 기억

Mingas유림 ;

당근 유스캠프! 이건 딜리에서의 5개월 통틀어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거다. 캠프 첫 날 너무나 어색하고 뻘쭘했던 그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그냥 캠프참가자'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었다. 유스캠프합숙으로 딜리생활을 시작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종종 그렇게 테라산타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Francisco 성한 ;

"Hau nia Naran Sicobonitu" (내 이름은 시코잘생겼어 야) 라고 소개하면 까르르 웃으며 "la bonitu" (잘 생기지 않았어) 라 말하며 도망가는 꼬마 녀석들. 반면, 떼뚱어를 구사하지 못해 머뭇거리는 내게 "Sico Beik" (시코 바보) 라 외치고 쓰러지며 웃는 청년들. 혼자 있는 걸 가만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매일 웃음을 담고 또,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한 나날들이다.

우리들의

일기장

개인 에세이

Carlos (정진)

벌써 한달 이라는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운 기분도 들고 이러다가 5개월이 훑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찰나의 두려움도 느낀 한달인 것 같다. 네명이서 먼 타지에 와서 알콩 달콩 살아가면서 점점더 가까워지고 현지의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것과 같다는 걸 느껴가는 것 같아서 더 편안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서스럼없이 지내고 있어서 팀원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칭찬도 지적도 더 많이 해서 항상 보탬이 되고 때론 짐이 될 수 있는 가족같은 딜리팀이 되길 바란다.



PS. 무언가를 하기는 쉽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면,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딜리에서 긍정의 힘으로 항상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4개월도 기대만발.

Berta (슬미)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매일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이고, 감사할 일의 연속이며, 배움의 연속이다.

유림언니, 정진오빠, 성한오빠와 딜리에 오게 돼서 감사하며, 이곳의 간사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고, 딜리에 오자마자 유스캠프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다.

항상, 돌아보면 가장 부족한 건 나인 것 같다. 그럼에도 항상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언니오빠가 있어서 참 고맙고, 다행이다.

회계를 맡은 첫날부터, 발리에서의 회계 정리가 안돼서 1시간 넘게 끙끙 맏었는데,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며, 도와주던 정진오빠.

회계가 자꾸 구멍이 나니깐, 돈을 흘려서 그런 걸 수도 있다며, 직접 고퀄리티의 수제 지갑을 만들어준 유림언니.

항상 '그래도 괜찮다'며 웃어주는 성한오빠.

초장부터 회계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잘 안되니깐, '아, 나 말고 남이 이랬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Berta (슬이)

점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원들을 보고 있자니, 즐겁고 신기하고 행복하다.

아미클라세 준비도 설레고, 이곳에서의 여유로 우면서도 긴장되는 생활도 다 좋다. 좀 더 치열해야 하는데, 내가 그냥 좋아만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아무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깐. 분명 이렇게 마냥 좋고 즐거운 시간들만 있진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도록 노력해야겠다.

PS. 이곳 티모르는 점점 더 더워지는 중이다.
내 열정도 처음에만 반짝 뜨거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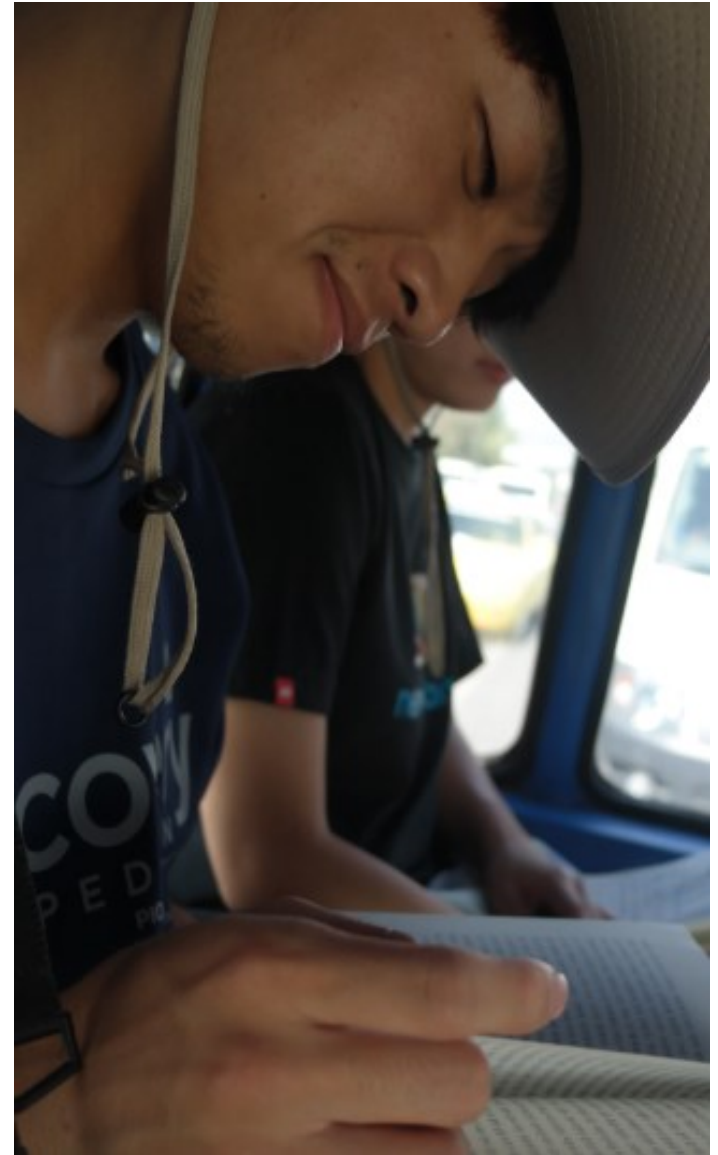


Francisco (성경산)

발리에서 첫 하루를 보내고, 우리가 만난 첫 티모르 인 이냐시오를 만났다. 짧은 영어와 몇 아는 떼똌를 동원해 나눈 대화 속에서 티모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배가 됐다.

하지만 딜리에 도착해 간사님과 외출 다녀오는 길, "찌나"라 부르고 관스레 시비거는 청년들을 보며 설렘은 걱정으로 변했다. 아무 탈 없이 5개월을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만나는 이들마다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돌이켜보면 이런 감정. 얼마나 오랜만인걸까. 행복한 걸까. 어찌면 지금, 날씨만큼 내 마음도 너무 이뜨거운 상태는 아닐는지. 그래도 곳에서 받는 힘을 빌어 최선을 다하고 싶다.

PS. 덧붙여 늘 실패를 두려워하던 내게 간사님께서 건네신 말. '실패하면 뭐 어때, 도전이 중요한 거지. 포기라는 마음보다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라용아씨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야' 앞으로 남은 기간, 도전하고 깨지고 다듬고. 진짜 나를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본다.



Mingas (유림)

내 가족과 친구, 주변 지인들은 어딘지도 모를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내가 “5개월씩이나” 가서 뭘 하고 오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른다. 사실 나는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건지 그 목적과 의미를 5개월 안에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했었다. ‘비전문 봉사자이며 미성숙하고 천방지축인 대학생’인 내가 여기 온 이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빨리 그 방향을 찾은 것 같다. 키워드는 “관계”. 관계란 누가 시켰을 때, 억지로 장을 만들려고 할 땐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만들고자 할 땐 어찌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된다. “Bondia(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시작되는 우리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테라산타에서의 하루 하루는 내가 이곳 사람들과 국적과 문화, 빈부의 차이를 넘어 같이 어울리고 고민하고 교류하고 직접 만나고 있다는 흥분을 안겨주고 있다. 다 똑같이 생겨서 누가 누군지 외우기 힘들 것만 같았던 얼굴들이, 진짜 슬이 말대로 어떻게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개성의 내 친구, 이웃이 되었다. “Friends of Asia”. 친구가 “되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온아 띠는 ‘봉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며 우리활동의 주체와 대상은 서로서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딜리에서의 첫 달을 관계로 시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시작이다. 이제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 좀 더 비판적이고 실천적으로 한번 더 의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